

# 삼바, 3분기 창립 이래 최대실적... 초격차 생산능력 빛나

로직스, 매출 1조6602억 기록  
전년 동기비 당기순이익 117% ↑

에피스, 영업이익 1300억 육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6602억원, 영업이익 7288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5%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5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21%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4조2484억원, 영업이익은 1조6911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70%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의 풀가동을 통한 매출 증대,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생산능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확보하며 성과를 거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것이다.

특히 5공장은 신규 수주에 따른 기술 이전과 함께 안정적인 램프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끌어올린 18만 리터(L) 규모의 5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총 생산능력을 78만 4000리터(L)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뚜렷한 수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시기준 누적 수주 금액은 5조

2435억원으로, 10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했다. 위탁개발(CDO) 사업도 3분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8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는 CMO 105건, CDO 154건으로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불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톱 20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최근 일본 톱10 제약·바이오 기업 중 4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1곳과 최종 협

의 증으로 글로벌 톱40위권 제약사 대상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임상시험수탁(CRO) 분야 진출을 위해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제품 모달리티 다각화를 위한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아테노부속바이러스(AAV) 등 첨단 바이오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매출은 4410억원, 영업이익은 129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90% 커졌다.

올해 미국 신규 제품 출시 효과 등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를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를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신제품

### 애경산업 '원생' 호호바 딥 모이스처 크림

애경산업은 스킨케어 브랜드 원생에 서저지극 고보습 크림 '호호바 딥 모이스처크림 (사진)'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식물유래 호호바씨오일을 함유해 거칠고 푸석해진 피부에 보습력을 제공한다. 오일 본연의 보습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 냉압착 방식을 적용했다. 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판테놀 등을 조합한 성분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관리해 준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에서 120시간 보습 지속력, 피부 장벽 개선, 온도차에 의한 손상된 피부 진정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거쳤다.

/이청하 기자

## 인벤티지랩, 미세유체 기반 'IVL-BioFluidic™' 공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 PODD 2025

바이오의약품, 피하주사 제형 전환 지원  
길리아드 등 다국적 제약사 협력 모색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 전문기업 인벤티지랩이 지난 27~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적 약물 전달체 컨퍼런스 'PODD 2025'에서 신규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PODD'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테크 기업의 C-레벨 임원, 연구개발(R&D) 및 사업개발(BD)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DDS 전문 컨퍼런스로,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이 공유되는 세계적인 행사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행사에서 '마이크로플루이드 기술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의 개발 및 응



인벤티지랩 최고기술책임자(CTO) 전찬희 전무 '2025 PODD'에서 신규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공개하고 있다.

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자사의 새로운 플랫폼 기술 'IVL-BioFluidic™'을 글로벌 제약업계에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IVL-BioFluidic™'은 인벤티지랩이 축적해온 미세유체 기반 DDS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항체 및 ADC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항체 의약품의 고용량 제형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도 증가나 주입 한계 등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정맥주사(IV) 중심의 치료를 피하주사(SC)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 개발에서 사용되던 히알루로니다제 등 추가 성분 없이도 고용량 제형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상업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J&J,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아드,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와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라이선싱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PODD 발표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0월 28~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국제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프랑크푸르트 2025'에서는 유럽 GMP 생산기지 구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어 11월 3~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BIO 유럽 2025'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신규 협력 및 기술이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IVL-BioFluidic™은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핵심 기술로, 바이오의약품까지 영역을 넓히며 회사의 기술 경쟁력과 기업가치 모두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반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DDS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애플, '월드 ADC' 참여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기업 애플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2025'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 최고 행사로 애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운영하며 애플릭 경쟁력을 알린다.

특히 애플은 애플릭의 기술적 우수성 및 확장성에 대해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한태동 애플 대표사는 "애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홀딩스, 자사주 2880억 추가 매입 추진

올해에만 약 1.8조 규모 매입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 7월 주주들과 약속한 5000억 원대 대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 규모를 약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달 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바로 약 2880억원 규모의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홀딩스 측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소벌법인)의 합병을 진

행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압박받고 있다고 판단해 주주가치 제고와 셀트리온 저평가 최소화를 위해 주식 장내 매입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셀트리온이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추가 주식 취득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트리온의 주식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조원까지 주식 매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약 9차례에 걸쳐 총 850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소각 규모도 올해만 약 9000억원이다. 서

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지난 7월 약 500억원,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도 약 500억원 규모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했다.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약 4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추가 주식 취득까지 완료되면 그룹 전체에 걸쳐 올해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이 이뤄진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힘을 보태 성장의 결실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유한양행 센스밸런스 콜라겐 스틱

유한양행은 여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센스밸런스에서 피부건강을 위한 신제품 '콜라겐 스틱 (사진)'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기존 콜라겐 제품에서 지적되던 비린 맛과 섭취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인정형 저분자 콜라겐펩타이드 GT를 처방해 체내 흡수율을 높였으며, 피부 건강 2중 기능성으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 아연과 셀레늄을 함유해 면역 기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갖췄다.

간편한 액상 스틱형 포장으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섭취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광동제약 아이톡쿨 점안액 3종

광동제약은 다화용 인공눈물 '아이톡쿨 점안액' 3종(순·라이트·쿨)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톡쿨 점안액은 일반의약품으로 주성분은 '히프롬렐로스'를 함유한다. 이 성분은 인공눈물의 점도를 높이고 눈물이 각막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다.

또 아이톡쿨 점안액은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 포도당 함유로 눈에 필요한 영양 공급 기능을 강화했다. 보습 성분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도 첨가제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L-멘톨 함량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됐다. '순' 제품은 부드러운 사용감을, '라이트'와 '쿨' 제품은 단계별 상쾌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